

지역 소식통

정읍,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20억 원 증액

정읍시는 당초 109억원이던 시비 직불금을 129억원으로 상향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비 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생산 기반 보호 및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며, 도내 농지 합산 0.1ha 이상 최대 3ha까지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정읍에 주소등록 농가 1만3,380여명으로 1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으로 109억원을 1월 중으로 지급하고, 지난해 쌀값 폭락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억원을 5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근래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이어 농업경영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직불금이 농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했고,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복지 예산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고,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서 기념행사... "상생 발전 기회의 장 기대"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축하하기 위해 17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 600여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홍보영상·플래시몹 상영, 내·외빈 LED풍선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비전을 함께했다.

식후 행사에서는 가수 강해연, 안성준, 오강혁, 유지니 등이 출연해 시민과 함께 즐기고 어울리는 흥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심이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함께 협력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축하하기 위해 17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고창군, 고창문화의전당서 축하 행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 최선"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축하 행사'를 17일 오후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성수 전북도의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 출신 가수 김현과 정해준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고창군민 '플래시몹' 공연과 단체 퍼포먼스 및 전주대 싸울이비 태권도 시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128년의 역사를 가진 전라북도의 새로운 출발 '전북특별자치도'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고창군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표방하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축하 행사'를 17일 오후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개최했다.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세계지질공원 병마위·선운산 등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인증 7가지 보물을 보유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물도시 고창군이 온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석 기자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위촉식 진행

부안군은 지난 16일 부안군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부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부안

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1월 16일부터 2년간이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 △지속가능성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 지속가능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 개최... 취약계층 보호 방안 논의

정읍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았다.

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사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결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받고,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 수급자 연가 조사계획 등 올 한해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 계획

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회에 걸쳐 심의회를 개최해 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심의 73건,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심의 252건, 생활안정자금 대여 3건에 대한 심의를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에 힘썼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15일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 등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부안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사업 진행상황 점검

실질적인 점검 및 평가

부안군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15일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 등 지역경제, 교육복지 분야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평가를 위하여 추진되었다.

평가단은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와 방죽천화적 복합공간인 온가족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관별 특색 추진사업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공약 개선 의견과 군민

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을 했다.

또한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 부안읍 농촌지활성화사업 방문지에서는 사업추진 진행상황과 준공이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재희 공약이행평가단장은 "권익현 부안군수의 민선8기 공약을 중점점검하는 중요한 시기에, 현장에서 직접 담당부서와 소통하며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적극행정,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방문을 진행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